

---

42Seoul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프로그램입니다  
근데 이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

오늘은 동료 평가를 하러 42Seoul 서초 클러스터에 왔습니다



클러스터에서는 아이맥을 제공합니다  
아이맥 상태가 좋아서 기쁩니다  
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개포 클러스터보다 잘 되는 느낌입니다

작년 11월 처음 아이맥을 접했을 때  
한/영 키 전환에서부터 막혔던 기억이 납니다

(평생을 윈도우쟁이로 살아옴)

불편하고 어색한 건 여전하지만  
윈도우와는 또 다른 매력(디자인이라거나, 디자인이라거나...)이 분명 있어서  
언젠가 아이맥이든 맥북이든 하나 장만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

의자도 오래 앉아서 프로그래밍하기 참 좋습니다  
이제 보니 갖고 싶은 게 참 많네요  
욕심에 맞게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